

'틀'을 깬 도자기의 변주...내밀한 사유와 공감하다

ACC 첫 도예 전시 '길 위에 도자' 가보니

이주의 경험 작가 4인 서사 도자 작품으로 조명 한국 흙·유약 사용한 재료적 실험 작품도 '다채'

형형색색 독특한 형태의 도자들이 눈길을 사로잡는다. 아시아에서 이주한 도예의 다양한 전개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전시가 펼쳐진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의 첫 도예 전시 '길 위에 도자'가 오는 7월28일까지 복합 전시관에서 진행된다.

전시에는 이민 2세대 혹은 입양 등 개인적인 이주 서사를 지닌 4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한국계 미국인 작가 스티븐 영 리를 비롯해 베트남-멕시코계 미국인 린다 응우옌 로페즈, 한국계 미국인 세오, 캄보디아계 미국인 에이미 리 샌포드다.

이 4명의 작가는 양식사적 접근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흘러온 이주 현상에 주목해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본 현대 도예 작품들을 선보인다. 문화적 충돌과 정체성 탐구의 맥락에서 자신의 서사를 오롯이 도자에 담아냈다.

스티븐 영 리 작가는 이번 전시를 위해 새로 제작한 총 7점의 신작을 선보인다.

매병 한 가운데가 완전히 풀려있는 형태의 작품 '독수리구름문양매병'은 이번 전시에서 가장 인상적이다. 도자의 기형을 깨뜨려 일종의 '해체'를 보여주는 것으로, 고려 청자라는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기존 학문

양을 미국 국가의 상징인 흰머리수리로 대체함으로써 새로운 도자의 모습을 선사한다.

린다 응우옌 로페즈 작가는 유년시절 이민 배경으로부터 비롯된 언어적 어려움을 계기로 일상 속 매우 사소하고 주변적인 사물들에 관심을 갖는다.

전시에서는 대걸레나 먼지 등을 의인화한 형형색색 도자 조각 '털복숭이 먼지' 시리즈 3점과 직접 앉아볼 수 있는 의자형 도자 조각 4점 등 신작들이 관람객을 맞는다.

자연의 형태를 모티브로 고려청자 유약을 사용해 자신의 정체성을 도자에 녹여내는 세오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신작 '정(精)원'을 포함한 다수의 작품을 광주의 식물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했다.

지금껏 사용해보지 못한 한국의 흙으로 여러 시행착오를 거쳐 만들어낸 그의 작품들은 흰색 전시장 풍경과 어우러져 마치 정원 속을 거니는 듯한 느낌을 준다.

자연스레 거닐며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곡선 형태의 테이블과 그에 따른 관람 동선이 돋보인다. 곳곳에는 작가들의 대표작들을 손으로 만지며 체험해볼 수 있는 촉각 전시도 마련됐다.

에이미 리 샌포드 작가는 전통 향아리를



린다 응우옌 로페즈 작가의 앉을 수 있는 의자 작품과 뒤쪽의 '먼지 털복숭이' 연작



한국 도자 재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실험적 시도를 거친 세오 작가의 작품들.



에이미 리 샌포드작 '무한한 호, 문화전당로'



스티븐 영 리작 '독수리구름문양매병'(왼쪽)과 '광주에서의 마지막 밤'

통해 캄보디아에서 자행된 집단적 폭력에 대한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과정과 그 결과물을 보여준다.

향아리를 일부러 깨뜨리고 그 파편들을

하나하나 글루로 붙여내고 실로 이어낸 작품 '무한한 호, 문화전당로'는 광주가 걸은 5·18의 상처와도 결을 같이 한다.

이와 함께 전시장에서는 조선대 미술대학

에서 길게는 한 달, 짧게는 2주 동안 머무르면서 작품을 만들어낸 스티븐 영 리와 린다 응우옌 로페즈, 세오 작가의 제작 과정, 인터뷰 영상도 만나볼 수 있다.

/최명진기자

순수한 자유의 세계, 동심을 마주하다

박주하초대전, 26일부터 국윤미술관

동심 어린 향수의 감흥을 통해 세대 간 공감을 아우를 수 있는 전시가 마련됐다.

국윤미술관은 오는 26일부터 5월26일까지 박주하 화백 기획초대전 '꿈엔들 잊으랴'를 진행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고향에서 보고 자라온 풍경과 그곳에서 자유롭게 노니는 아이들의 동심, 향수를 주제로 한 화폭 25점을 선보인다.

작품 속 점묘법은 박 화백이 1900년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작업으로, 나이프나 붓을 이용해 다양한 색을 섞고 높은 채도를 만들어

내는 그만의 독창적인 화풍이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정겨움, 순수한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동심이 담긴 작품들을 통해 한국적 정서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전시 기간 중 다음달 11일과 19일 2일간 전시 연계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작품 해설을 들은 후 박 화백 작품 스타일과 동심을 따라 점묘법을 활용한 마티에르 작품을 제작하는 활동이다.

전시와 체험은 무료이며 정기휴무일인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관람 가능하다. 체험프로그램은 선착순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꿈엔들...'

다. 자세한 내용은 국윤미술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명진기자

서구공공도서관 '인문 라이프러리'

오는 25일 첫 프로그램

지역민들의 인문소양 함양을 위한 도서관 인문학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서구공공도서관이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인문 라이프러리(life+library)-일상 속 인문학 올림'이다.

인문 라이프러리는 문학(文)-역사(史)-철학(哲) 각 분야를 아우르는 프로그램으로 이달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윤성희 와이엔듀 대표가 진행을 맡

아 오는 25일 '제익스피어로부터 탄생한 음악들'이라는 주제를 시작으로 ▲5월9일 '시인과 함께 태어난 음악들' ▲5월23일 '문학을 바탕으로 한 오페라 명작들' 등 강연이 펼쳐진다.

다음으로 최유준 전남대 교수가 6월13일 '음악을 들으면 미래가 보인다' 강연을 시작으로 ▲6월27일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7월11일 '로망을 좇아주세요?' 강연을 들려준다.

자세한 내용은 062-654-4306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명진기자





인연이 있다 결혼으로 있다

딱 맞는 인연을 만나고 싶을때 "여보야"

"여보야"는 새롭고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결혼문화를 창조하기위해 제작된 결혼 전문 플랫폼입니다.

**지금 스마트폰에서 "여보야"를 다운로드 받고
당신과 평생을 함께 할 배우자를 찾아보세요**



빅데이터와 최신 AI로 배우자 찾기



프리미엄 결혼 플랫폼 여보야 노블레스



결혼부터 출산까지 여보야가 적극 지원해드립니다

고객센터 **1522-3379**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4층

이제 "여보야"에서 인연을 만나보세요

다운로드하기 

App Store에서 다운로드하기 

